

社說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시민의식 요구 — 4·19 30주년을 맞이하여

금년으로 우리는 4·19 30주년을 맞이하였다. 4·19유족회는 물론 각종 4월혁명단체들과 대학들, 심지어는 정부에서조차 기념식을 성대하게 갖는 등 금년 들어 유난히도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것 같다. 그러나 이런 행사를 주관하고 또한 이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깊이 있게 '4월 정신'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흔히들 4·19를 '未竟의 革命'이라 부른다. 그것은 피로 얼룩진 아스팔트 위에서 장렬히 산화해간 젊은이들의 자유, 민주, 정의에 대한 절규가 아직도 이방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점을 슬퍼한다.

4월혁명은 표면적으로는 이승만 독재에 대한 항거로서 나타났지만 그 운동의 본류에는 자유와 민주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정의롭게 살아가자 하는 우리 민족의 정치철학이 깊게 깔려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땅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정의가 존중되는 사회를 건설하자는 소박한 시민정신이 바로 4·19정신이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정형화된 사상이나 이데올로기적 구도는 있을 수 없었다. 그저 독재가 싫고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민란들이 거리로 뛰쳐 나왔으며 쓰러지는 젊은이들의 모습에서 죽음도

두렵지 않은 불퇴전의 용기가 분출한 것이었다. 그들은 다만 민주주의를 요구한 것이다.

4·19 30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아직도 未竟에 머물고 있는 우리에게 값진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4·19에서 얻은 민권이 5·16에 의하여 부정되고, 80년 봄의 자유가 5·17에 의하여 압살된 것처럼 이제 6·10항쟁으로 얻어진 민주화의 여정이 그 어떤 외적강요에 의해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다.

왜 이런 역사의 후퇴가 가능했을까? 그것은 역사를 왜곡시켜가면서까지 자신들의 소용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반동집단의 출세에 주원인이 있지만 지나친 자유의식에 도취되어 그들에게 발미를 제공한 우리 사회에도 일부의 책임이 있었음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4·19 30주년을 맞이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시민적 의의와 필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일일 음치럼 냉정한 시민의식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개편논의, 학과단위에서부터 진행해야 — 전공과목개편에 바란다

그동안 대학의 교과과정은 형식과 행정 편의주의적이라는 문제점이 줄곧 지적되어왔다. 4년의 학부과정을 졸업하고도 자기의 전공에 대해 명확한 인식체계를 세웠다고 자부하기 어려운 것도 그것은 이유에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학교육의 현실을 볼 때 교과과정개편논의의 활성화는 교과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적으로 개혁하려는 데서 그 근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와 올해 초에 걸쳐 진행되었던 교양과목 개편작업은 현실감각에 맞는 폭넓은 교양 학습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데에서 큰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33개과목에 걸친 교양과목 신설이 보다 명확한 교육목표와 장기적 안목에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일은 신설된 교과목에 수강신청한 학생수가 적어 많은 과목이 폐강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앞으로 전공과목개편을 준비할 주체들이 심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전공과목개편에 대해 몇 가지 기본적인 방향들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첫째로 전공과목개편작업은 각 학과단위에서 주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실질적 논의의 주체는 전공에 대해 명확한 이해와 경험을 지니고있는 각 학과 교수, 학생들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둘째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편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의 전공교육은 특히 학문의 전문성이 강조되는 교육이며, 전공에 관한 제 학문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하기 때문에 깊은 사려를 통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에 걸맞는 과목들이 신설되어야 한다.

셋째로 교수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학생들의 개편작업 요구에 대한 타율적인 참여가 아니라 전공과목 개편작업의 주체는 바로 교수자신들임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지난 17일 학교당국과 총학생회 교과과정심사위원회는 첫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전공과목개편작업에 착수했다. 전공과목개편을 진행하는 주체들은 모든 대학 구성원의 큰 기대와 요구도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전공과목개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거듭남의 진통, KBS 사태를 지켜보며

단순 거부 넘은 꿈은 소리 위한 길

사설

KBS사태는 한국언론 전반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 문제로 떠오르고 말았다.

의형상으로는 사장임명을 둘러싸고 벌어진 '거대군단' KBS내의 문제인데, 실제로는 정무부가 그간 끊임없이 시도해온 방송 재·개편 구도가 빚어낸 극단적 사건이다.

여기에서 방송사상 초유의 방송사 경합 병력 투입이라는 당국의 무리수가 겹치면서, 민주언론운동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부각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전국적 KBS 지방방송의 연대투쟁이 폭발했음은 물론이고, 타언론사들까지 그간 술하게 자행해온 당국의 노골적 언론개입의 '최후보루'로써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고, 자연스레 연대투쟁으로 이어져 버렸다.

특히 MBC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 동종 제작거부 방침을 건의했고, CBS도 19일 MBC와 보조를 맞추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으며, 피할 수 없는 '한판의 승부'가 만들어진 셈이 됐다.

또한 KBS내의 부장단 국·실장단들이 사원들의 제작거부를 동조하고 나섰을 뿐더러 지방사 총국의 간부들이 아예 농성투쟁에 동참을 선언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일단 연대투쟁이 이토록 급속한 확

'공영' 허울 쓴 방송 재장악 기도의 결과 민주언론의 연대투쟁과 국민적 지지 필요

이런 정책용어로 제시해 왔었다. 간단히 말해 5공의 '관제방송' 치욕을 명지 다시 개혁해야겠다는 논리인데, 그 개편과정이 밀실행정의 전형을 이루면서 오히려 상황을 강하게 내비쳤기 때문이다.

즉 '방송제도개혁위원회' (이하 방제위)라는 기구를 구성하면서 특정인들을 당국이 지목해버렸단건, 연구과정에 서 특정인들이 전횡하는 사례가 잦아 일부 교수들이 자신사퇴하는 사태를 빚고 했고, 특정 결과를 유도하려는 듯 '결과'를 미리 흘려주는 사례들은 이미 확인된 사실들이다. 여기에서 지난 3월 말 발표된 방제위 연구결과가 전국 네

산주제로 치달은데는, 서울신문 사장 재직시부터 노조탄압에는 일가견을 자랑해와 언론계내에서 반민주인사로 낙인 찍혀온 문제인들을 사장으로 임명하면서 비롯됐다. 또한 취임과정에서 경합을 동원하는가 하면, KBS 간부들에게 서슴없이 무리한 행동을 자행하는 등 일선 언론인들의 공감을 자아낼 소지가 처음부터 다분했기 때문이다.

이보다 문제의 본질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제기돼온 당국의 언론장악 음모에서 찾는 것이 옳다. 그 음모중 '방송 재장악 기도'라는 테마는 그간 끊임없이 3개방송사를 자극해왔고, 이에 대한 3방송사노조의 대응투쟁이 연대화와 움직임은 결과적 산물이기도 하다.

'방송 재장악 기도'는 이미 언론선에서 일반화된 얘기로, 정부당국은 6공 출범전부터 이를 방송재 개편



"싫어 싫어 난 못 물러가!"

전연론계를 감타했던 프레스카드부활 망령도 기실 따지고 보면 '기본법상'과 '상황전개방식'에서 방송장악음모와 유사성이 많다. 이것도 똑같이 89년 공보처 청와대 연두보고에서 '사이비언론전결'을 내세워놓고는 정부측은 단지 적극 대응해온 듯 시늉만 거듭하다가 1년후 '그간 집적된 '사태'만을 내세우는 해결 방법'으로 프레스카드 부활을 들고 나왔다.



세종대, KBS문제 해결에 모두의 지혜를

이러한 자가당착적 언론생활인식과 정책논리가 바로 6공 언론정책의 '두얼굴'을 대변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일부 여론이 양비론으로 흐르는 것 자체가 반언론적이고 반민주적 책동으로 규탄받고 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러한 언론생활 인식때문에 현재의 KBS사태에 모든 민주언론운동세력이 집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언론 자유시대의 구가'를 외쳤던 언론생활의 본질과 부닥치고 있는 민주언론운동의 새 장이 KBS의 민주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김종찬
(한국기자협회 편집국 차장)

여러 사람으로부터 심한 모욕을 받는 등 망신살이 났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사실에 관해서 입만 열면 모세의 정치생명은 하루 아침에 끝난다'라고 함으로써 정치판을 흔들고 온통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더니 끝내는 관직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중중 우리는 술래 없는 말을 지껄임으로써 감잡을 수 없는 정도와 손해를 당하곤한다. 그리고는 그때까지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잠잠하게 있음으로써 조그만 손해도 보지않는 자를 몹시도 부러워하고 또한 존경하게된다. 유

4월주제 '말(言)'

총보다 무서운 말

'말'은 인간이 상호간에 의사소통을 하는데 사용하는 매우 귀중한 도구이다. 그래서 인간은 말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하며 또한 타인의 의사를 전달받기도 한다. 아마도 이 세상에 말이 없었다면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었을런지 모르겠다. 뿐만아니라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이처럼 발달된 모든 문명도 말이 없었다면 불가능이나 했었는지 알 수 없다.

이와같이 인간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사용되는 말은 잘만 사용하면 비단칠처럼 부드럽고, 솜사탕처럼 달며, 한없는 위안과 평화를 가져오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비참함과 엄청난 충격, 그리고 공포를

부득이 할 말만 요약해서 적게함이 옳겠다

면 많은 사람들이 다친다'고 하여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며 이들이 어떻게 다칠것인가에 대해 실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등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다가 결국에는



김병진
(법대교수·행정학)

보기보다는 손해를 당하기가 쉽기므로 말을 얹는 것이 상책이었으나 부득이 말을 해야 할 경우에는 되도록 요약해서 적게하는 것이 옳겠다.

이같은 사태는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언론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사태를 사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풀어야 할 과제이다.

무엇이 이토록 우리를 어렵게 하는가? 그것은 국가 권력이 국민위에서, 국민에게 잘못 행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권력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므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마땅하다. 약삭빠르고 영리한 소수 지도자들이 어리석고 우매한 다수 민중을 다스리려는 습다. 그러나 아무렇게 깨우친 다수 국민들이 간악하고 욕심많은 소수 위정자들을 감시 감독 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를 각자가 더욱 눈을 크게 뜨아하며 아울러 나라 구석구석에 원사관, 단사관, 단사관이 많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가르쳐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

큰 어른이 무척 그리워지는 때이다.

권영환
(노동조합서울컴퓨터부장)

다시한번 '형실자공'의 의미를 생각한다.

옛 중국의 (차운)이란 사람은 기름을 살 돈이 없어 대신 반딧불을 모아 그 불로 공부했다고 합니다. 부처님만찬이라고 생각하셔도 모르겠지만 그리 흔하지 않은 반딧불을 아마도 수백 마리씩이나 쫓아다니며 모았을 그의 학구열에는 절로 감탄이 납니다.

지금 우리가 (차운)처럼 반딧불을 모아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가락만 움직이면 환하게 불이 켜지고 그때와는 비교가 안될만큼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지식을 쌓아가는 일에서는 그와 다를바 없습니다. (차운)이 한마리 한마리 반딧불을 모았듯이 우리도 조금씩 학문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반딧불이 모여 큰 빛을 발하였듯, 우리의 지식과 지혜도 점점 밝아져 갈 것입니다.

● 또한 제철은 다음세대의 행복과 다음세대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